

경남 방언의 음운 현상과 음절 틀 맞추기

이 근열

— 차례 —

- | | |
|-------------------|---------------------|
| 1. 들어가기 | 음절 틀 맞추기 |
| 2. 경남 방언의 음절과 배열 | 3.1. 음절 틀 맞추기 음운 현상 |
| 2.1. 경남 방언의 음절 구조 | 3.2. 경남 방언의 양음절성 |
| 2.2. 경남 방언의 음절 배열 | 4. 마무리 |
| 3. 경남 방언의 음운 현상과 | |

〈머리〉

이 연구는 경남 방언에서 분절음을 단위로 하여 예외로 다루어지던 여러 음운 현상을 음절을 단위로 설명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언은 그 자체의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예외적인 것으로 다루기보다는 보편적인 언어 법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 믿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 방언은 표준어와는 달리 높낮이가 뜻의 분화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음절을 단위로 하여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하여 먼저 경남 방언의 음절의 기본 구조를 “닿+홀+닿”과 “닿+홀”로 파악하고, 그 배열에 있어서 고조의 첫음절이 중음절로 되려는 경향이 강해서 축약과 삽입 등의 음운 현상이 음절의 틀 맞추기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이려 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경남 방언은 음절 틀 맞추기 중에 양음절적인 성향이 두드러져 있음을 보이고, 그 양음절성의 종류를 구개음의 양음절성, 유음의 양음절성, 비음의 양음절성, 평음의 양음절성으로 구분하여 그 음절 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1. 들어가기

경남 방언은 표준어와는 다르게 음운론적으로 특이한 삽입과 탈락 등의 음운 현상이 많이 발견된다.¹⁾

- (1) ㄱ. 가르다 - 꺾라다
- ㄴ. 고르다 - 골라다
- ㄷ. 기르다 - 질루다
- ㄹ. 자르다 - 잘르다

위의 보기에서 보듯이 'ㄹ' 불규칙 풀이씨가 경남 방언에서 표준어보다 기본형에 'ㄹ'이 더 첨가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을 분절 음을 단위로 기술한다면 표준어의 음운 현상인 'ㄹ' 불규칙의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기본형을 표준어와는 다르게 설정하여 규칙적인 활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음절을 단위로 설정하여 설명한다면 위와 같은 현상을 예외적인 음운 현상으로 다루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다. 즉, 경남 방언은 표준어와는 달리, 고저로 분화되는 기본 특징상 첫째 음절은 고조의 음절이 많다. 특히 이런 고조 음절은 보통 홀소리가 긴장 홀소리이어서 이러한 긴장 홀소리를 가진 음절은 중음절(heavy syllable)이어야 한다는 규칙²⁾에 의하여 둘째 음절의 초성 /ㄹ/이 양음절적으로 첫음절의 종성에 영향을 미쳐 겹닿소리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보기 (2)와 같

-
- 1) 경상도 방언은 일반적으로 성조에 의해 고·저의 경북 방언과 고·중·저의 경남 방언으로 나눈다. 경남 방언은 우리말의 근간이 되는 신라어와 신라어에 융합되었으리라고 여겨지는 가야어가 각 소방언권(군 단위) 사이의 약간의 독자적인 변천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음운 구조의 차이에 따라 서부 경남권과 동부 경남권으로 분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동래를 중심으로 김해, 양산, 창원, 진주 등을 대상 지역으로 삼아 방언권을 구분하지 않고 경남 방언으로 통칭한다.
 - 2) 즉 강세가 있는 음절은 운모(rhyme)의 음절 핵이 중모음이거나 종성이 있어야 한다는 강세 음절 규칙을 말한다.

은 음절 구조로 설명이 가능하다.³⁾

$$\begin{array}{ccc}
 (2) & \begin{array}{c} \sigma \quad \sigma \quad \sigma \\ / \backslash \quad / \backslash \quad / \backslash \\ k \quad E \quad l \quad a \quad d \quad a \\ (+TENSE) \end{array} & \rightarrow \begin{array}{c} \sigma \quad \sigma \quad \sigma \\ / \backslash \quad / \backslash \quad / \backslash \\ k \quad E \quad l \quad l \quad a \quad d \quad a \end{array}
 \end{array}$$

이러한 양음절성(ambisyllabicity)에 의한 ‘ㄹ’ 겹닿소리화는 첫음절을 선호하는 음절형으로 맞추기 위한 음절 구조의 틀 맞추기의 일환으로, 고저로 분화되는 경남 방언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⁴⁾

본 연구에서는 경남 방언의 기존의 음절 구조와 음절 배열을 살펴 선호하는 음절의 틀을 설정하고 이를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음운 현상들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방법론의 가장 밑바탕 된 생각은 방언의 음운 현상들이 예외적이고 특별한 가치로 다루어지기보다는 기본적인 언어 범주 속에서 움직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에 주목하려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방언의 자료들은 주로 김 영송(1975), 박 지홍(1973), 김 영

3) 일반적으로 음절 구조의 모습은 선형적·평면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와 계층적·입체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평면적인 음절 구조는 음절 교점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구성 요소들이 나란히 위치하는 것으로, “두음(onset)+핵(nucleus)+말음(coda)”의 구조로 파악하여 음절 구조가 음절 교점을 중심으로 서로간의 관련성이 없는 구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계층적인 구조는 음절의 구성 요소가 양분되는 모습을 서로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두음(onset)과 운모(rhyme)로 구분하고, 다시 운모는 핵과 말음으로 나누어 구조 그림을 그린다. 어느 것이 우리말에 더 적합한 음절 구조 모습인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두음+핵+말음”의 모습으로 구조 그림을 제시한다.

4) 경남 방언의 성조는 河野六郎 이래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주 시경, 홍 기문, 최 현배, 남 광우에서는 주로 음강설이 주장되었고 허 응, 정 연찬, 김 영송, 김 차균, 김 영태 등에서는 고저설이 제시되었다. 또한 문 효근, 김 영만에서는 위의 두 가지 설을 절충하여 음강, 고저가 함께 반영되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아무튼 경남 방언은 고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언어임이 확실하나 고저의 단계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는지는 약간씩 다르다. 고조·저조로 이분하는 학자도 있고 고조·중조·저조로 삼분하는 학자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높고 낮음의 이분의 체계로 기술한다.

태(1985), 김 봉모(1991)의 것을 원용했음을 밝힌다.

2. 경남 방언의 음절과 배열

음운 현상은 특정한 언어 사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언어 현상이다. 특정한 언어의 음운 현상은 그 언어의 음운 체계의 기술에 유용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언어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은 분절음의 변화(change), 삭제(deletion), 삽입(insertion), 병합(coalescence), 전환(metathesis) 등인데,⁵⁾ 이러한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음절이라는 단위를 어용하지 않고는 간결하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음절을 음운 기술의 기본 단위로 삼지 않아도 음운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운 현상을 더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절을 음운 기술의 기본 단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⁶⁾

경남 방언의 특이한 음운 현상은 분절 음소끼리의 영향에 의하여 설명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해서 음절의 배열의 측면에서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방언에 있어서의 음운 현상은 다른 주위의 음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분절음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도 무

5) Hyman, L. M.(1975 : 14~15) 참고.

6) Selkirk(1982)에서는 음절이 음운 기술의 기본적인 단위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들고 있다: ① 한 언어의 분절음 배열 제약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설명력 있는 언급은 단지 발화의 음절 구조를 고려할 때만 가능하다. ② 분절 음운론의 광범위한 규칙들은 음절이 그 적용 영역을 이룰 때 음운 현상이 간결하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③ 강세 및 성조 등의 초분절 음운 현상들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분절음은 크기의 단위들로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Hyman, L. M.(1975)에서는 위의 변화, 삽입, 삭제, 병합, 전환의 다섯 가지 음운 규칙은 서로 다른 음운 규칙들이 동일한 두 요소가 인접해 있는 상태를 회피하려는 원리라는, 더 보편적인 대조의 원리(a principle of contrast)에 의해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닿소리 다음에 홀소리가 올 때, 대조적 관계가 성립하며 닿소리와 닿소리 또는 홀소리와 홀소리가 결합되는 분절음의 연쇄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조성이 약하기 때문이며, 음절 유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CV 유형을 꼽는 것도 이 유형의 음절 구조에서 두 분절음이 가장 대조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조, 음절의 배열, 단어의 구조 등에 따른 제약을 체계적으로 살피는 것이 한 언어의 음운 현상을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남 방언은 길어로 분화되는 표준어보다는 성조가 음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기존에 논의된 경남 방언의 음절 구조와 음절이 배열되는 모습을 살펴보자.

2.1. 경남 방언의 음절 구조

모든 언어에는 그 언어의 고유한 음절 유형이 있으며 그 언어의 고유한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핵 음절이 있다. 이 때의 핵 음절은 한 음절이 허용하는 모든 음절 유형을 포함하는 최대 음절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밝혀진 경남 방언의 실현 가능한 음절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유형이다.

- ① V형 - 아 야 와
- ② CV형 - 나
- ③ VC형 - 옥 옥 왁
- ④ CVC형 - 목

위의 보기에서 보듯이 홀소리가 겹홀소리일 경우에는 닿소리가 첫소리로는 결합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겹홀소리 자체가 발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영이’와 ‘경이’의 발음에서 받침의 닿소리는 표준어와 동일하게 ‘7종성’으로만 발음되고 겹닿소리의 경우는 표준어와는 다르게 /ㄹ/음이 유지되고 있음이 특색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 음절 구조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말의 기본 음절의 경우 홀소리 하나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⁷⁾ 즉, 초성의 ‘ㅇ’을 음가 없는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7)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최대 음절은 다음과 같이 기저와 표면으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종성의 기저의 두 개의 닿소리가 표면형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하나의 닿소리로 실현된다.

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음절형을 CV형으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ㅇ'의 음가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홀소리 단독으로 음절을 이룬다고 설명하는 것은 홀소리라는 음소(음성)가 바로 음절이 되는 것이므로, 음절이 가지는 영역이 음소(음성)의 영역과 구분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우리 국어는 과학적인 체계와 구조로 맞추어 만들어진 언어이다. 여기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닿소리 체계에 'ㅇ'과 달리 'ㅇ'이 존재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ㅇ'에서 'ㅇ'이나 'ㅎ'으로 가획되어 문자가 만들어질 때 'ㅇ'을 영(zero)의 요소로 보고 만 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⁸⁾ 또한 <훈민정음>에서 홀소리가 초성이 될 수 없음은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인식으로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홀소리는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없다.

첫째는 분포에 의한 이유이다. 우리말에서 홀소리 앞의 'ㅇ'이 음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듯하나 분포로 보면 다른 닿소리와는 대립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 보기를 들면 '고마 : 오마'의 대립은 음운론적으로 /ㄱ/과 /ㅇ/의 최소 대립쌍이므로 /ㄱ/와 /ㅇ/으로 설명해야 체계적이지 /고/와 /오/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비체계적이란 점이다. 특히 음운론에서는 체계에 의한 합리적인 설명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 대립에 위배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둘째로, 음운론적 사실 말고도 음성학적 증거로 /ㅇ/의 음가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향 실험에도 'ㅇ'은 홀소리(성대 진동)가 시작되기

<기저> → (표면)

(C)(G)V(C)(C) (C)(G)V(C)

- 8) <훈민정음> 해례 규정에서 '불청불탁'의 후음으로 규정하는 'ㅇ' 음가는 정확하게는 판정할 수 없지만 목청의 울림과 관계 깊은 것이라 생각된다. 즉, 목청의 울림 요소(?)가 가획이 되어 막히면 'ㅇ'과 같이 목청 닫음(파열)이 일어나고 더 가획되어 'ㅎ'으로 되면 쉼표로 되는 이치와도 같다고 설명할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는 'ㅇ'은 'ㅇ'에 비하여 그 소리가 세고 'ㅎ'보다 세지 않으나 'ㅎ' 소리가 얇은 데 비하여 'ㅇ'은 소리가 깊다고 설명하고 있음으로 보아서 'ㅇ'에도 소릿값이 'ㅇ'보다 약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에 과도(glide)로 보이는 에너지가 존재하며, 발음에 걸린 시간으로 보아 CV와 oV가 비슷하여 홀소리 앞의 'ㅇ'에 일정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⁹⁾

마지막으로, 우리말에서 닿소리가 홀소리 사이에 분포할 때, 대부분 유성음화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닿소리가 유성음 사이의 분포에 의한 변이형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닿소리 뒤의 초성 'ㅇ'의 음가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 때는 무성의 닿소리를 유성의 자질로 변화시키는 음성적 자질로 'ㅇ'의 가치를 규정할 수 있다. 즉 [P]+'ㅇ'=[b], [t]+'ㅇ'=[d], [k]+'ㅇ'=[g], [ʈ]+'ㅇ'=[dʒ], [s]+'ㅇ'=[z]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이형은 중세 국어의 'ㅍ'과 같은 연서 표기에 사용되었던 'ㅇ'의 음가와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기존의 '홀소리' 단독으로의 음절 구조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설명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음절의 유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남 방언의 음절 구조는 '닿소리+홀소리+(닿소리)'로 설정할 수 있다.

2.2. 경남 방언의 음절 배열

위에서 살핀 기본적인 음절 구조가 실제의 언어 연쇄에서는 음절과 음절의 배열로 나타난다. 분절음의 단위로는 분절음의 연쇄로 보이나 경남 방언같이 성조가 음절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언어에서는 분절음의 연쇄로는 음운 현상의 본질을 보기 어렵다. 종전의 방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음절의 덧음소의 가치보다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분절음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여 왔고, 분절음의 상호 영향과 변인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음운 현상을 설명해 왔었다.

9) 이에 대한 실험 보고는 김 성수(1994, <음소 /ㅇ/ 및 /ㅁ/의 설정-창원 지역어를 중심으로>, 우리말 연구회 여름 교실 발표 요지)를 참고할 것. 김 차균(1985)에서도 'ㅇ'의 존재를 인정하고, 'ㅇ'음운 [+활음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올림도 8도의 목소리로 보고 있다. 또한 오 정란(1993)에서는 'ㅇ'은 'ㄹ', 'ㄷ', 'ㅇ'와 홀소리 사이에서의 'ㅇ'이 약화된 유성 후두음(h)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절은 기본적인 언어의 단위이며 우리의 언어 생활에 필수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라 판단되어 음절을 음운적인 기본 단위로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말의 토박이 화자의 경우, 언어 의식에서 음소만을 따로 분리하여 언어 전달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리고 외래어를 — 그것이 비록 단음소라 할지라도 —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 음절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거꾸로 말하기 말놀이에도 음절을 단위로 한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특히 Hyman, L. M.(1975)이 지적한 대로 모든 언어에서 발견되는 기본적인 음절의 형(표부 음절형, unmarked syllabic type)은 CV형이다. 이것은 다른 형의 음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조차 아동 언어의 습득 과정에서 배우는 음절형이 이 CV형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말에서 위의 'ㅇ'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경남 방언의 기본적인 음절형은 CV형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다음의 보기를 살펴보자.

- (3) ㄱ. 높다 - 노푸다
 익히다 - 이쿠다
 알다 - 야푸다
 싫다 - 시푸다
 ㄱ'. 노푸다 - 뉘푸다
 이쿠다 - 익쿠다
 야푸다 - 압푸다
 시푸다 - 십푸다

위의 (3)ㄱ은 표준어에서 첫음절의 구조가 CV이나 경남 방언에서는 CVC 구조로 실현되고 있다.¹⁰⁾ 그러나 이 보기들은 대체로 첫음절의 성조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조를 하기 위해 첫음절을 높은 성

10) 이것들은 '우' 불규칙 풀이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표준말에서는 “푸다” 하나 밖에 없지만 경남 방언에서는 많은 어휘가 여기에 속한다. “가루다, 고루다, 궁구다, 깨우다, 서쿠다, 시푸다, 야푸다, 이쿠다, 지푸다” 따위이다. 경남 방언에서 줄기가 '우'로 끝나는 어휘가 많은 것은 하입·임음 접미사에 '우·후'가 많기 때문이다. 경남 방언에서는 고찰 홀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자세한 용례와 보기는 김 봉모(1991 : 178~180)를 참고할 것.

조로 발음하게 되면 (7)ㄱ'와 같이 '늑푸다', '익쿠다', '얹푸다', '십푸다' 따위로 첫음절이 중음절인 CVC로 발음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다른 보기를 보자

- (4) ㄱ. 붓다(腫)
 붓+으이 → 붓으이
 부+어서 → 붓어서
- ㄴ. 붓다(注)
 붓+어라 → *붓어라, 부라
 붓+으이 → *붓으어, 부우이
 붓+어서 → *붓으서, 부우서

위의 (4)ㄱ '붓다(腫)'와 (4)ㄴ의 '붓다(注)'의 경우를 비교해 보자. 경남 방언에 있어서 이 두 단어는 성조의 차이에 의해 뜻이 구분되는데, (4)ㄱ의 몸이 '붓다'는 첫음절이 높은 상성(H)조이고 (4)ㄴ의 물을 '붓다'는 평성(M)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음절이 고조인 (4)ㄱ의 경우에만 중음절인 CVC를 유지하기 위해 'ㅅ'이 불규칙하게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데 비해, 첫음절이 저조인 (4)ㄴ의 경우에는 'ㅅ'이 탈락하여 CV형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남 방언에서 같은 형태라도 성조가 높은 음절은 홀소리가 긴장 홀소리가 되어 음절 배열 상에 표준어에서 자연스런 'CV+CV'의 음절 구조가 'CVC+CV' 구조로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보기를 살펴보자.

- (5) ㄱ. 거렁뱅이 - 꺾뱅이
 아가미 - 알개미
- ㄴ. 게으르다 - 꺾받다
 다니다 - 땡기다
 떼어 먹다 - 땡가 묵다
 아니꼽다 - 앵꼽다
- ㄷ. 그렇게 - 글키
 미끈하게 - 밍그레
 고스란히 - 푼다시

위의 (5)의 보기에서처럼 음절의 '닿소리+홀소리#닿소리+홀소리'의 구조가 '닿소리+홀소리+닿소리'의 구조로 축약되거나 첨가되는 현상이 경

남 방언에서는 빈번하게 보인다. (5)ㄱ의 경우는 이름씨, (5)ㄴ의 보기는 풀이씨, (5)ㄷ의 경우는 어찌씨의 보기이다. 이것은 대체로 빠른 언어이기 때문에 축약과 첨가가 빈번한 이유도 있지만 성조의 언어인 경남 방언어 음질의 세기가 강해지면서 빚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 단어들의 첫음절은 대체로 높은 성조로 발음되는 경향이 많아서 중음절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음절로 가기 위한 일련의 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경남 방언에서는 낮은 성조의 첫음절은 우리말의 보편적인 특징과 맞게 '닿+홀'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음절형이나, 높은 성조의 첫음절은 '닿소리+홀소리+닿소리'의 음절 배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음소의 배열에서 자연스럽게 음절의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구성은 선행적으로 구조 조건의 제약 하에 놓이게 되었고 그 구조의 제약은 표기법의 규정으로 채택하게 된 사실도 고려될 만하다. <훈민정음>의 가장 기본적인 규약은 '예의'에 나타나 있는 '凡字必合而成音'의 규정과 '합자해'의 '初中終三聲合而成字'의 규정이다. 이는 글자의 경계가 곧 음절의 경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나 실제의 표기에 있어서는 초·중만으로 흔히 쓰이는 글자를 많이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단지 초·중·종성을 모두 갖추는 것은 한자음 표기의 경우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규정에 대하여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닿+홀'의 배열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켜 인식한 결과라 여겨진다. 음성학적으로 음질의 핵은 홀소리이며, 이 홀소리는 닿소리에 의해 완전한 음절이 된다. 특히 홀소리는 공명을 위한 소리이며 닿소리는 그 공명의 구분을 위한 하나의 조작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첫소리의 조작이 필요하다면 단어의 요소로 종성의 조작도 필요한 것이 이치적으로 타당하다. 만일 홀소리만으로 음절이 끝날 경우에는 그 공명이 첫소리의 닿소리에 의해 조작되듯 뒷소리의 닿소리의 조작이 잉여적일 수도 있다는 전제만 가능하다면, 기본

경남 방언의 음운 현상과 음절 틀 맞추기: 이 근열

적인 음절의 구성이 '닿+흠+닿'이 합리적이다. 특히, 초성 닿소리의 자리는 강화의 자리이고 종성 닿소리의 자리는 약화의 자리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이 종성은 약화된 것으로 잉여적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경남 방언은 음절의 배열의 측면에서 첫음절에 중음절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살펴보았다.

3. 경남 방언의 음운 현상과 음절 틀 맞추기

분절음의 삽입과 탈락, 축약 등의 음운 현상은 더 자연스럽고 선호하는 음절의 형을 갖추기 위한 일종의 음절 구조 맞추기이다. 특히 경남 방언에서는 이러한 음절 맞추기의 일환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음운 현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음절 틀 맞추기의 음운 현상 가운데 양음절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음절 맞추기의 음운 현상을 살펴보자.

3.1. 음절 틀 맞추기 음운 현상

경남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준어와는 다른, 여러 음운 현상이 있다. 이는 CVCV로 배열된 음절의 첫음절이 약음절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CVCCV의 배열 구조로 첫음절을 중음절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보편적인 음운 규칙을 파괴하고 예외적인 현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경남 방언에 주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살펴보자.

먼저 'ㅅ' 불규칙 활용의 풀이씨 경우이다.

- (6) ㄱ. 낮+아라 → 낮아라
- 낮+으이 → 낮으이
- 낮+아서 → 낮아서
- ㄴ. 잇+어라 → 잇어라
- 잇+으이 → 잇으이

위의 (6) ㄱ, ㄴ의 보기에서 나타나듯이 'ㅅ'의 불규칙 풀이씨의 경우

에도 경남 방언에서는 '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즉 (6)ㄱ의 '낫+아라', '낫+으이', '낫+아서'의 경우에 표준어처럼 '나아라', '나으이', '나아서' 등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낫아라', '낫으이', '낫아서'로 '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어의 불규칙 풀이씨가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풀이씨에는 위의 보기 이외에 '낫다(勝)', '벗다', '갓다', '쫓다'도 같은 활용을 한다. 이것은 경남 방언의 성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ㅅ'이 규칙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첫음절이 대체로 높은 성조인 데 비하여, 'ㅅ'이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낮은 성조의 경우이다. 이것은 위의 (4)의 보기에서 보인 바 있다.

둘째로, 첫음절 말의 'ㅂ'이 홀소리 사이에서 순경음화되어 '우'로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보기를 보자.

- (7) ㄱ. 굶+어라 → 굶어라
 섭+은 → 습은¹¹⁾
 춥+어라 → 춥어라
 ㄴ. 가랑비 - 갈방비
 가리구이 - 갈비구이
 갈뽕 - 갈범
 (8)¹²⁾ ㄱ. 부럽다 - 뽕다
 ㄴ. 서럽다 - 섣다

위의 (7)ㄱ의 보기에 나타나듯이 표준어에서는 'ㅂ'이 홀소리 사이에서 순경음화되어 '우'로 바뀌면서 '구워라', '쉬운', '추워라' 따위로 실현되는 데 비하여 경남 방언에서는 'ㅂ'이 그대로 유지되어 첫음절의 CVC의 형에 맞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남 방언에서는 (7)ㄱ과 같은 풀이씨의 활용형 이외에도 (7)ㄴ과 같이 한 단어 안에서도 첫음절을 중음절로 유지하기 위하여 'ㅂ'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보기는 (8)ㄱ, ㄴ의 경우인데, 이것은 첫음절 CV의 기본 배열형을 첫음절 CVC

11) 그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너무 습은 문제는 내지 마라."

12) 이 단어는 주로 동래 지역에 보이는데, 쓰임의 보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나는 니가 뽕비 머치겠다.", "머가 섣분지 역시기 물어 상더라."

경남 방언의 음운 현상과 음절 틀 맞추기: 이 근열

음절 구조로 만들기 위해 ‘ㅌ’의 끝소리로 유지하여 ‘불버’, ‘설버’ 따위로 활용한다. 이런 경우도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CVC 첫음절의 틀에 맞추기 위하여 홀소리를 탈락시켜 축약해 버리는 경우라고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로, 종성 겹닿소리의 발음에서 ‘ㄹ’이 유지되는 경향이 많다. 다음의 보기를 보자.

- (9) ㄱ. 닭+이 → 달기, 달이
 ㄴ. 흙+이 → 헐기, 헐이

표준어에서의 발음은 (9)는 ‘다기’, ‘호기’로 첫음절이 약음절로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남 방언에서는 종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달이’, ‘헐이’ 따위나 ‘달기’, ‘헐기’로 첫음절이 중음절로 실현되지만 하고 ‘다리’, ‘호리’와 같이 첫음절이 약음절로는 실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과 같이 첫음절 말음의 발음에서 뒷 음절의 초성 즉 강화의 자리에 놓일 수 있는 닿소리들이 앞 음절의 말음에서 약화된 채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보이고 있음은, 첫음절에 대한 중음절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성조의 높낮이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다른 겹종성의 경우로 알 수 있다. 다음 보기 (10)을 생각해 보자.

- (10) ㄱ. 짧다 - 짜리다¹³⁾
 ㄴ. 자르다 - 찰르다

위의 (10)ㄱ의 ‘짧다’는 표준말에서 ‘짧다’나 ‘찰다’로 첫음절이 중음절로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남 방언에서는 ‘짜리다’로 첫음절이 약음절로 실현된다. 그 이유는 같은 유형으로 나타날 법한 (10)ㄴ의 ‘찰르다’의 경우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즉, (10)ㄱ의 ‘짜리다’ 첫음절이 낮은 성조이고 둘째 음절의 ‘ㄹ’ 홀소리에의 긴장 강세가 있는 형태이나, (10)ㄴ의 ‘찰르다’는 첫음절의 성조가 고저이다. 그래서 단어의 형태는

13) “절고 찌린 것은 대 바야 안다.”, “찌린 것은 베릿베라.”, “찌린 남구는 가 오지 마라.”

서로 비슷한 형태이지만, 높은 성조의 음절에는 중음절로 실현되고 낮은 성조의 음절은 약음절로, 서로 다른 음절 구조로 나타난 보기이다. 넷째로, 특이한 음운 현상의 하나로 닿소리가 첨가되는 경우이다.

- (11) ㄱ. 끼우다 - 켜구다, 쟁가다
 ㄲ. 낚나볼 - 낚타볼
 그네 - 군네
 꼬투리 - 꼰타리
 ㄴ. 지키다 - 정키다, 진키다
 끼아다 - 켜기다
 개평 - 갱평
 저울 - 정얼
 ㄷ. 차다 - 찹다
 짜다 - 찼다
 쓰다 - 썩다

위의 첫음절을 중음절을 만들기 위하여 (11)ㄱ은 'ㄴ'이 첨가되는 경우이고, (11)ㄴ은 'ㅇ'이, (11)ㄷ은 'ㅁ'이 첨가되는 경우이다.¹⁴⁾ 여기서 (11)ㄷ과 같이 첫음절의 종성에 유음과 비음 따위의 종성 위치에 선회되는 음을 선택하지 않고 장애음을 선택함으로써, 발음의 편리성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발음이 어렵게 하면서까지 닿소리를 삽입하는 것은, 첫음절의 중음절의 틀 맞추기의 강한 선호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¹⁵⁾

14) 경남 방언에서 주로 콧소리 'ㅁ, ㄴ, ㅇ'이 첨가되는데 대개 뒷 음절 첫소리의 관련을 가지고 있다.

15) 유음이나 비음의 음절 말음 선호의 경향은 Hooper(1976)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그는 음절의 초성과 음절의 종성을 위한 소리의 적합성을 구분하면서 초성에 가장 적합한 초성을 장애음, 비음, 유음, 활음, 홀소리 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종성에 가장 적합한 종성을 반대로 홀소리, 활음, 유음, 비음, 장애음 순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김 차균(1981)에서는 호퍼의 이러한 지적은 자연 언어의 공식적인 음절 구조에 대한 자료와 음운의 역사적인 변천에서 관찰된 몇 개의 스페인어의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어마다 달라 보이는 현상을 스페인어를 설명에 맞도록 임의적으로 조작한 느낌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말의 음운에는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남 방언에서도 삽입되는 닿소리는 'ㅁ, ㄱ, ㅅ, ㄴ, ㄷ' 따위인데, 유음이나 비음은 삽입되기보다 양음절화나 겹닿소리화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장애음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음으로 보아도 김 차균의 지적에 부합된다.

다섯째로, 경남 방언에서 [r]이 [l]로 되려는 경향이 있다.

- (12) ㄱ. 고리 - 풀기
 나. 노래 - 놀개
 다. 어레미 - 얼기미

위의 보기는 둘째 음절의 초성이었던 ‘ㄹ’이 첫음절의 종성에 실현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3)과 같이 표준어와는 달리 ‘ㄹ’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13) ㄱ. 부삼 - 불손
 나. 소나무 - 솔나무

이처럼 종전에 경남 방언에서 여러 가지 특이하게 다루어 온 음운 현상이 첫음절을 중음절로 만들어, 선호하는 음절형으로 맞추기 위한 틀 맞추기의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절의 틀 맞추기의 일환으로 경남 방언에서는 다양한 양음절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음절의 배열이 두드러진다.

3.2. 경남 방언의 양음절성

위에서 살핀 음절 맞추기의 경향으로 경남 방언에서는 양음절성(am-bisyllabicity)에 의한 겹닿소리화와 음운 첨가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양음절성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자.

3.2.1 양음절성의 본질

3.2.1.1 양음절성

양음절성이란 하나의 닿소리가 두 개의 음절에 동시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닿소리가 두 개의 음절에 소속된다는 것은 닿소리(C)가 두 홀소리(V1과 V2) 사이에 왔을 때, 즉 V1 C V2와 같이 되었을 경우에, 이 C는 V1 C로서 앞 음절의 후부(coda)가 되기도 하고, 또한 C V2로서 뒤 음절의 전부(onset)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Kahn(1976)

에서는, 음절 구분 규칙(syllabification rules)으로 무강세 홀소리를 가진 음절의 첫 닿소리(여기서는 닿소리가 하나일 경우도 있고 닿소리군일 수도 있으나, 닿소리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 닿소리, 닿소리군일 경우에는 그 첫 닿소리)는 그 앞 음절이 홀소리 또는 전이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그 앞 음절에도 동시에 속하게 됨을 말한다.¹⁶⁾ 영어에서는 초성 최대 원칙 즉 초성에 가능한 분절음을 최대한 배속시키는 원칙, 예를 들면 'construction'에서 음절로 분할할 때, 'con-struc-tion'으로 분할하여 /s/를 앞 음절의 종성에 배속시키지 않고 초성에 배속시키는 원칙과 강세 음절 규칙과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양음절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양음절화 현상은 음절이 겹쳐지는 현상으로 음절이 쉽게 경계지어지는 느린 말(slow speech)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계기적으로 발음되는 음절이 깨끗하게 구분되지 않는, 정상 내지 빠른 말(normal and faster speech)에서만 일어난다.

또한 이러한 양음절성을 허용함에 영어에서는 다음절(polysyllable) 형태와 단음절(monosyllable) 형태의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도 있다. 영어는 어휘적으로 강세 있는 단음절의 경우에 [bɪp]/[læk]/[nek] 등으로 닿소리가 따라오게 된다. 이 때 닿소리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엔 *[bi], *[læ], *[ne] 등과 같이 짧은(이완) 홀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다음절인 경우엔 양음절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pe\$trɒl, ci\$ty, re\$cker와 같이 강세 음절이 개방될 수 있으며, 여전히 짧은 홀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 때문에 이런 단어에서 중간에 있는 닿소리가 양음절적이라고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두기도 한다. 즉, 짧은 홀소리는 강세 있는 음절 후부(rhyme)의 단일 요소가 될 수 없어서 강세 음절의 음절 후부는 반드시 'nucleus'와 'coda'의 복합된 모습(중음절)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양음절성은 분절음과 음절 절점(syllable node)의 연쇄(linking)과 일괄 처리(bracketing)를 허용한다는 예외성으로 음운 이론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연쇄의 복

16) 보기: [hæpi](happy)의 [p]와 [æstə](aster)의 {s}.

합 규칙(complex rules of linking)을 적용하여 음운 이론으로 채택하고 있다.¹⁷⁾

3.2.1.2. 우리말의 양음절성

우리말에서도 음절의 겹침에 의한 양음절 현상이 많이 보인다. 중세 국어에서는 표면 음절과 기저 음절의 음절 구조의 대립이 생길 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음절 사이의 닿소리가 앞 음절의 종성과 뒷 음절의 초성에 함께 속하도록 하는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 (14) ㄱ. 스스이시니(농엄 1:33), 스승온(농엄 7:6)
 ㄴ. 물애(월인 1:24), 모래(가해 7:24)
 ㄷ. 얹이(용가 103), 아씨(두연 8:34)

이런 양음절 현상은 음절 초에 오기를 꺼리는 약한 닿소리에서 일어나는데, 위의 (14)의 보기에서 보듯이 (14)ㄱ은 [ŋ]의 경우, (14)ㄴ은 [l]의 경우, (14)ㄷ의 경우는 [z]에 해당하는 것이다.¹⁸⁾

이러한 양음절성은 중철 표기에 잘 드러나는데, 16세기부터 시작된 표기법의 혼란은 당시의 음절 경계의 혼란으로 발생한 양음절성의 경향들이 반영된 표기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표기법은 16세기 초기 문헌 《여씨향약언해》(1518), 《이론행실도》(1518), 《정곡언해》(1518) 등에서부터 많이 나타나는데, 그 보기는 다음의 (15), (16)에서 볼 수 있다.¹⁹⁾

- (15) ㄱ. 사름물(여 1), 사름미(이론 6), 남금미(이론 27)
 ㄴ. 허물물(여 6), 제걸떡(여 19), 손발물(정곡 4)
 ㄷ. 벼슬물(이론 15), 오늘날(이론 47)
 ㄹ. 겨집븐(정곡 5), 겨집비(이론 15), 옷발불(이론 8), 잡마(이론 17)
 ㄴ. 도죽기(이론 46), 음식기(이론 5), 죽겨시라(이론 9), 밥먹글(이론 5)
 ㅂ. 옷슬(여 23)

17) 자세한 것은 Anderson & Ewen(1987), Clements & Keyser(1983), Kahn(1976)을 참고할 것.

18) 중세 국어의 양음절성은 이 병운(1993: 153~159)을 참고할 것.

19) 중철 표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근대 국어 표기법의 제 문제>, 정신문화연구(1993), 제16권 제1호(통권 50)를 참고할 것.

- (16) ㄱ. 동녘꺾(여 21), 서녘꺾(여 21)
 나. 반볼(여 4), 발타(이륜 16), 볼볼티미오(여 29), 곧툼(여 4), 곧티(이
 륜 13)
 다. 김피(이륜 48)
 르. 못밋쳐(여 20)

(15)의 경우는 '완전 중철형'으로 앞 음절의 종성과 뒷 음절의 초성이 같은 닿소리를 실현시킨 일종의 겹닿소리화(germination)²⁰⁾이며, (16)의 경우는 '부분 중철형'이다. 완전 중철과는 달리 부분 중철형은 첫음절의 종성이 8종성이 아니어서 8종성으로 바꾸고 둘째 음절의 초성을 첫음절의 원래 종성을 표기한 것이다. 이것들을 과도기적인 표기 형식으로, 맞춤법의 혼란으로 다루기보다는 양음절성의 실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분철 표기가 정착된 이후에도 이러한 중철 표기가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것은, 이러한 표기가 불안한 형태가 아니고 음절의 겹침에 의한 닿소리의 양음절성의 발음이 그대로 표기된 것으로 자연스런 음절 인식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우리말에서의 양음절이란 같은 음의 이중 배속이지만 하나의 음절 자질의 전이로도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생기며, 양음절은 두 음절에 다 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음절에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양음절의 두 음절의 성격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 혼철의 경우라면, 'ㅇ'의 울림의 자질의 공유는 어느 음절에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표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20) 겹닿소리화(닿소리 중복, 겹닿소리)는 서재르만어 시대에 일어난 음성 변화(sound change)의 하나로 단 홀소리(short vowel) 앞에 오는 홀단 닿소리(단 /r/은 제외)가 뒤에 오는 /j/에 의해 중복되는 현상을 말한다(*satjan>sattjan). 현대 영어의 동사 활용이나 형용사의 비교 변화 등에서 어말의 닿소리 앞에 오는 홀소리가 단 일음절 때 그 닿소리를 중복한다. 이것을 닿소리 중복이라 부르며 이런 경우 단 홀소리에 반드시 강세(stress)가 있어야 하며, 강세가 없을 경우에는 닿소리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다(defér-deférred-deférring; cf. differ-differed-differing). 현대 영어에서는 형태소가 서로 겹쳐지는 경우 이외에는 동일한 닿소리를 중복해서 발음하는 일은 없다(bookcase[búkkeis], penknife[pénnáif]).

3.2.2. 경남 방언의 양음절성

위와 같은 우리말의 양음절성의 현상은 경남 방언에도 잘 드러나고 발달해 있다. 경남 방언은 중세 국어와 같이 성조로 인한 높낮이가 발달한 언어이기에 음절의 혼란과 겹침이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 경남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음절 맞추기의 현상이 발견된다.

3.2.2.1. 구개음의 양음절성

경남 방언에서는 홀소리와 구개음 사이에 /n/이 첨가되는 현상이 있다. 이 음운 현상은 광범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두 음절 이상 단어에서 두번째 음절의 초성인 파찰음 /스/나 /즈/이 뒤따르는 /l/ 홀소리와 연결되어 음절을 형성하고 있을 때 앞선 음절의 말음에 /ㄴ/을 첨가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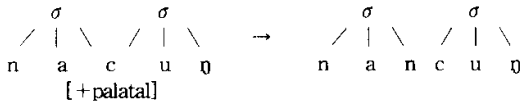
(17) ㄱ. 까치 — 칸치, 칸챙이	여치 — 연치
고치 — 곤치	꼬투리 — 꼰타리
꼬나불 — 곤타불	바지락 — 반지락
ㄴ. 고치다 — 곤치다	무치다 — 문치다
비치다 — 빈치다	그치다 — 근치다, 곤친다
빼치다 — 뻬치다	부러트리다 — 뽀카다, 뽀라다
어지간하다 — 엔간하다	겨누다 — 전준다, 전주다
지나다 — 진기다, 징기다	지키다 — 진키다, 징키다
가지런하다 — 간지렁하다	마추다 — 만추다
ㄷ. 가지런히 — 간조로미	나중 — 난중, 낸중
마져 — 만자	아직 — 안주, 안지, 안죽
이제 — 인자	

(17)ㄱ은 이름씨의 경우, (17)ㄴ은 풀이씨, (17)ㄷ은 어찌씨의 경우이다. 이렇게 다양한 용례를 기존에는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음운 현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다른 첨가 현상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단어의 중간에 닿소리가 삽입되는 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²¹⁾

21) 이러한 현상을 음운론적 조건과는 다르게 표현의 강화 현상으로 파악할 수도

그러나 이런 용례는 첫음절을 강하게 발음하거나 강세가 없힐 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첫음절의 강세가 없힐 때는 중음절이 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뒷 음절의 초성이 양음절의 성격을 가진 닿소리이어야 한다. 이 경우 뒷 음절의 초성이 파찰음이어서 이 파찰음은 앞 음절의 종성으로 공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파찰음은 발음 시간(VOT)이 기므로 두 음절 사이에 놓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양음절성을 띠는 약닿소리를 첨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약닿소리로 ‘ㄹ’, ‘ㄴ’, ‘ㄷ’ 음이 첨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구개음 쪽에 가까운 음인 ‘ㄴ’을 선택함으로써 ‘ㄷ’, ‘ㄴ’ 따위의 구개 자질을 공유하게 하여 음절 조화를 이루며 첫음절을 중음절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구개 자질의 공유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첨가에 의한 자질의 공유는 다음의 보기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어인 “나베, 타바코”가 우리말로 “냄비, 담배”로 바뀌는 것이 그 보기이다. 둘째 음절의 초성인 ‘ㅂ’의 양순적인 자질에 따라 ‘ㄹ’의 양순 비음을 첨가하여 첫음절을 중음절로 만든 것도 ‘양순 자질의 공유’ 즉 양순음의 양음절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구개 닿소리의 양음절성은 다음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나중 - 난중



있다. 이는 말의 청각 상을 한층 더 똑똑하게 하려는 뜻에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닿소리 음소에 의한 표현 강화법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표현 강화란 단지 화자의 의도에 의한 관습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때, 왜 발음하기도 쉬운 닿소리와 홀소리의 배열을 무시하고 첫소리의 받침을 첨가해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첫소리를 아예 된소리로 바꾼다든지 /ㄴ/과 같은 비음을 사용하기보다 다른 된소리 닿소리, 특히 닿소리 강도가 큰 /ㄱ, ㅋ, ㄴ/ 따위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닿소리 첨가 현상의 강화라는 측면으로 표현법의 일종으로 해석하기에는 음운론적 합리성이 부족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ㄴ' 첨가는 뒷 음절의 구개음의 양음절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첫음절을 중음절로 맞추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구개음의 양음절화로 설명할 수 있다.

3.2.2.2. 비음의 양음절화

다음으로 경남 방언에 흔하게 보이는 것으로 음절의 종성에만 쓰이는 /ŋ/이 초성에 실현되는 경향이 많다.

- | | |
|------------------------|-----------------|
| (19) ㄱ. 누에 - 눔에 | 바위 - 방우 |
| ㄴ. 종이 - 종오 | 잉어 - 잉어 |
| 방아 - 방아 | 붕어 - 붕어 |
| (20) ㄱ. 홍이 - 송이 | 병이 - 빙이 |
| 총이 - 총이 | |
| ㄴ. 동산+이 - 동상이 | 손+이 - 송이 |
| ㄷ. 보니 - 봉이 | 가니 - 강이 |
| 오니 - 옹이 | 지니 - 징이 |

위의 (19)는 이름씨의 보기이고 (20)은 풀이씨의 끝바꿈과 이름씨의 토씨 바꿈의 보기이다. (19)ㄱ은 음절 사이에 'ㅇ'을 첨가하여 첫음절의 종성과 둘째 음절의 초성으로 쓰인 경우이고, (19)ㄴ은 두 음절의 단어에서 앞 음절의 종성 /ㅇ/을 뒷 음절 초성 그대로 실현시킨 경우이다. 또한 (20)ㄱ은 'ㅇ'을 종성으로 가진 이름씨에 입자자라 토씨 '-이'가 결합될 경우, 첫음절 말음의 'ㅇ'이 음절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 뒷 음절의 초성으로도 쓰이는 경우이다. (20)ㄱ에서는 음절 사이의 'ㅇ'이 두 음절에 걸쳐 있는 것이지만, (20)ㄴ에서는 첫음절의 종성인 /ㄴ/이 'ㅣ' 홀소리 앞에서 /ŋ/로 실현되어 앞 음절의 종성과 뒷 음절의 초성 사이의 음절 경계가 모호해진 경우이다. (20)ㄷ의 경우는 풀이씨의 끝바꿈 경우로, 둘째 음절인 씨끝의 /ㄴ/이 홀소리 사이에서 /ŋ/로 실현되어 음절 사이의 경계가 겹치는 경우이다.

종전에는 비음화(이 병선 1967, 이 익섭 1981) 현상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비모음화와 /n, ŋ/의 제거(최 명옥 1982)로 파악하기도 하거나 초성의 'ㅇ'의 실현(김 영태 1985)으로 보기도 한다. 'ㅇ'음의 초성에 나타

나는 현상을 종종 비모음화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홀소리의 비모음화라기보다 초성 /ㅇ/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음성학적으로 홀소리는 공명성이 강한 것이고, 닿소리는 그 공명성에 일정한 허의 조작으로 소리의 변형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면, 홀소리의 비음화는 홀소리가 공명을 얻은 상태에서 다시 콧소리의 공명을 얻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며, 홀소리는 그대로 공명을 하는 상태에서 닿소리의 조작으로 콧소리의 공명을 가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말의 비모음화는 닿소리 /ㅇ/의 실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음절의 이론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ㅇ'이 앞 음절의 종성인지 뒷 음절의 초성인지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음절 사이의 'ㅇ'은 음절의 경계를 잡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 보기로 '강+이'가 보통은 [kaŋ-i]로 실현되어 연음 법칙의 예외로 인식되기도 하고, 허 웅(1985)에서는 음절의 틀 맞추기에 의하여 [ka-ŋi]로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ㅇ'이 양음절적인 성향을 가지므로 해서 생긴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무엇보다도 경남 방언에서는 다음 (21)의 음절 구조에서 보듯이 [ka-ŋ-i]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1) \text{ 강이} \rightarrow \text{강이}$$

$$\begin{array}{ccccc} & \sigma & & \sigma & \\ & / \quad | \quad \backslash & & / \quad | & \\ k & a & \eta & i & \end{array}$$

특히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중성과 초성에 표기하는 경우가 보임은 'ㅇ'의 양음절적인 성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ㅇ'음의 초성 실현을 양음절성으로 파악한다면 우리말의 비음화나 비모음화 규칙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도 있다. 표준 발음으로도 '평양', '통영'의 발음이 [피양], [토영]이라고 보는 것도 이러한 비음의 양음절적인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2.3. 유음의 양음절화

경남 방언에서는 ‘르’ 변칙 풀이씨이지만 기본형 어간에도 /르/음이 하나 더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 | | |
|---------------------|--------------------|
| (22) 가르다 - 겐라다, 갈런다 | 가리다(선택하다) - 갈리다 |
| 고르다 - 골라다 | 자르다 - 잘린다 |
| 바르다 - 발린다 | 기르다 - 길라다, 질루다 |
| 기르다 - 길린다 | 꼬르다(열다) - 겐라다, 게라다 |
| 다르다 - 달리다 | 부러지다 - 뿔라지다 |
| 드리우다 - 딜루다 | 마르다 - 말린다, 몰린다 |

위의 (22)의 보기들은 들어가기에서 살렸지만, ‘르’의 양음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남 방언에서는 불규칙 풀이씨의 불규칙 활용으로 예외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와 ‘르’의 첨가 혹은 기본형 어간에 ‘르’이 하나 더 첨가된 형을 기본형으로 삼아야 한다.²²⁾

이러한 ‘르’의 양음절성은 우리 언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표준어는 씨끝의 활용에 ‘르’이 양음절성을 띠어 겹닿소리화하는 데 비하여 경남 방언에서는 기본형에 많은 용례가 보이는 것이 그 특징이다.

3.2.2.4. 평음의 양음절화

종성의 발음은 우리말에서 일반적으로 7종성만이 발음이 되며 앞 음절의 종성은 뒷 음절이 홀소리가 올 경우에는 연음되어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남 방언에서는 종성의 유기음 ‘ㅍ, ㅌ, ㅋ, ㅊ’이 뒷 음절이 홀소리로 시작되더라도 다음과 같이 앞 음절의 종성이 뒷 음절로 연음되지 않고 앞 음절의 종성으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많다.

- (23) ㄱ. 앞에 - 압페
 높아 - 놉파
 값아 - 갑파
 ㄴ. 발에 - 발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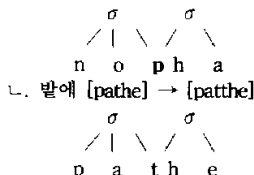
22) 오 정란(1993)에서는 국어의 ‘르’음을 그 기저형을 /r/로 보고 그것이 양음절 위치에 있으면 [r], coda 위치에 있으면 [l]로 실현되며, 이 coda 위치의 [l]은 겹닿소리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슴을 ~ 손틀
 ㄷ. 부엌에 ~ 부엌케
 저물넉에 ~ 저물넉케
 르. 꽃에 ~ 꼰케 → 꼰테
 낮으로 ~ 난츠로 → 난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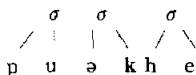
위의 (23)의 보기와 같이 첫음절의 종성 유기음들이 뒷 음절로 그대로 연음되지 않고 앞 음절에 유기음의 평음을 실현시킨 후 뒷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연음 법칙의 예외가 되는 것인데, 유기음 'ㅍ, ㅌ, ㅋ, ㅊ'가 경남 방언에서는 [pʰ], [tʰ], [kʰ], [cʰ]로 분석되기보다는 [ph], [th], [kh], [ch]의 계기성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설명한다면 연음 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즉, 위의 첫음절 종성의 유기음들이 자연스럽게 둘째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었지만, 첫음절을 중모음으로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둘째 음절의 첫소리인 유기음의 계기성으로 인하여 유기음에 해당하는 평음이 첫음절의 종성으로 실현시킨 양음절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음성학적으로 '기'의 경우는 단음소리의 개방 직후에 따라나오는 숨으로, 연 자리의 심한 기식이나 단기에서 기압을 높임으로써 실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가 닿소리와 동시에 조음되기보다 닿소리의 발음 뒤에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음운론적으로도 'ㅂ'+'ㅎ'이 'ㅍ'로 실현되는 것을 보아도 기음들이 우리말에선 계기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연음된 뒷 음절의 기음이 계기성을 가지므로 [p], [t], [k]으로 양음절성을 띠어 앞 음절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한다면 다음 (24)와 같은 음절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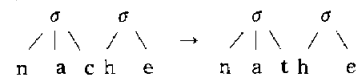
(24) ㄱ. 높아 [nophə] → [nophə]



ㄷ. 부엌에 [puəkhe] → [puək̚k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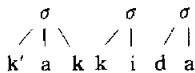
ㄹ. 낮에 [nache] → [nac̚che] → [nat̚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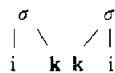
다음으로, 위의 보기 (23)과 마찬가지로 (24)도 양음절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츠'의 평음인 '즈'가 양음절성을 띠어 '낮체'로 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낮체'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즈'은 발음 시간(VOT)이 길어서 양음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에'의 경우 경남 방언으로는 '낮체'로 발음하기보다는 '낮테'로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츠'의 유기음도 이러한 평음의 양음절성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경음의 경우에도 경남 방언에서는 그 계기성이 두드러지므로 유기음과 마찬가지로 평음의 양음절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ㅼㅼ, ㅼㅼ, ㅼㅼ, ㅼㅼ, ㅼㅼ'이 첫음절의 종성이나 뒷 음절의 초성에 분포할 경우에 'ㅼㅼ+ㅼㅼ, ㅼㅼ+ㅼㅼ, ㅼㅼ+ㅼㅼ, ㅼㅼ+ㅼㅼ, ㅼㅼ+ㅼㅼ'의 계기성으로 분석하면 유기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된다. 경음이 종성에 실현된 '깍이다'와 경음이 초성에 실현된 '이끼'의 경우를 예로 들면, 경남 방언에서 '깍이다'는 대체로 '깍끼다'로, '이끼'는 '익끼'로 실현되는 경우를 평음의 양음절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25) ㄱ. 깍이다 - [k'ak'ida] → [k'akkda]



ㄴ. 이끼 - [ik'i] → [ikk̚i]



위와 같이 경남 방언에는 강세로 인한 첫음절의 중음절의 선택으로 다양한 양음절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마무리

방언의 기술에서 음운 현상을 분절음의 연쇄로 다루는 것은 많은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종전에 예외로 다루어 오던 경남 방언의 음운 현상을 음절을 단위로 음절 맞추기의 보편적인 현상을 구현한 것으로 보고 기술하려 하였다.

먼저 경남 방언의 기본 음절 구조를 'o'의 음운론적인 해석에 따라 “닿소리+홀소리+(닿소리)”로 규정하고 설정하였다. 특히 경남 방언은 표준어와 같이 장단으로 구분되는 언어가 아니고 고저로 구분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고조의 첫음절을 중음절로 맞추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경남 방언에서 보이는 빈번한 축약과 첨가 현상은 첫음절의 CVC의 구조를 선호하는 음절 틀 맞추기라 볼 수 있다. 특히, 음절 맞추기에 따른 음절의 겹침인 양음절의 현상이 경남 방언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이것을 구개음의 양음절성, 유음의 양음절성, 비음의 양음절성, 평음의 양음절성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음절 구조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경남 방언은, 다른 방언 기술도 마찬가지이지만, 표준어와 구분되는 현상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언어 현상을 발견하여 나름대로 체계에 의한 기술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 김 봉모. 1991. <부산 지역어의 특성>, 한국 문화 연구 제4집. 부산대 한국 문화 연구소.
김 영송. 1963. <경남 방언의 음운>, 경남 방언 도지 (중). 경상남도 도지 편찬 위원회.
김 영송. 1975. <우리말 소리의 연구>, 샘 문화사.
김 영진. 1985. <경남 방언의 몇 가지 음운 현상>, 가라 문화 제3집. 경남대 가라 문화 연구소.
김 영태. 1985. <창원 지역어 연구>, 가라 문화 총서 제1집. 경남대 출판부.
김 종훈. 1992. <음절 음운론>, 한신 문화사.

- 김 차균. 1981. <음절 이론과 음운 규칙>, 충북대 인문과학 논문집 제8-1호.
- 김 차균. 1983. <음운론의 원리>. 창학사.
- 김 차균. 1985. <음절 구조 속에서 활음의 기능>, 언어 연구 제2집. 한국 언어학회.
- 김 형규. 1980. <한국 방언 연구>. 서울 대학교 출판부.
- 박 정수. 1992. <변동 규칙에 의한 경남 방언의 분화>, 동아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 지홍. 1975. <양산 방언의 음운-음소와 그 체계->, 어문학 제33집. 한국 어문학회.
- 서 보월. 1991. <음운 현상과 제약>, 어문 논총 제25호. 경북 어문학회.
- 오 정란. 1993. <국어 '르'의 양음절성과 겹자음화>, 언어 제18권 제1호.
- 이 기석. 1993. <음절 구조와 음운 원리>. 한신 문화사.
- 이 병선. 1967. <비모음화 현상 고>, 국어국문학 제37·38호. 국어국문 학회.
- 이 병운. 1993. <중세 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운 현상>, 부산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 익설. 1981. <영동 영서의 언어 분화>. 서울 대학교 출판부.
- 정 국. 1994. <생성 음운론의 이해>. 한신 문화사.
- 최 명옥. 1982. <월성 지역어의 음운론>. 영남 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 허 용. 1985. <국어 음운학>. 샘 문화사.
- Anderson, J. M. & C. Ewen. 1987. *Principles of Dependency Phonology*.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4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ements, G. N & Keyser, S. J. 1983. <CV-Phonology>, *A Generative Theory of the Syllable*. Cambridge. MIT Press.
- Hooper, J. B. 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Phonology*. Academic Press. New York.
- Hyman, L. 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 Khan, D. 1976. *Syllabic-based Generalizations in English*. Ph. D. Dissertation, MIT.
- Selkirk, E. O. 1982. <The Syllabic>, In H. van der Hulst and 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I)*. Dordrecht: Foris.

